

#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5차 세션, 입장을 표명하다, 골로새서 3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세션 5입니다. 입장을 표명하세요, 골로새서 3장.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라는 위대한 서신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다루었으며, 이제 2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이 논의의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서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기초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션의 시작을 형성할 16절에서 19절까지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음식과 음료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아무도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고집하고 환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며, 감각적 마음에 의해 이치 없이 길을 잃고, 온 몸이 관절과 힘줄을 통해 자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장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결합되는 머리를 굳게 잡지 않는 자로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진술을 확립했고,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 안에 근거하고, 기초를 두고, 확립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돌아서는데, 이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판단을 받지 마십시오.

16절. 당신은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 말 또는 특징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마치 당신이 경주에 참가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꿈꾸던 기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항상 그 일부라고 생각했고,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당신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풀은 당신이 누구도 당신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 책임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패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구성되는지 보는 것은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경고를 보고, 18절 a에서 평행 경고를 봅니다.

그리고 16b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평행선, 주요 이슈 18b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 수 있고, 19에서 평행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읽는다면, 그것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16절 가.

18a. 아무도 너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16절에서.

음식, 음료, 축제, 초승달, 빛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8절의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고집하고 환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자들은 이유 없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당신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평가. 16절에서.

17절은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들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19절의 평가. 온 몸이 영양을 공급받고 각 관절과 힘줄을 통해 결합되는 머리를 굳게 잡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장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을 실격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굳게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세요. 바울은 이어서 이 주제를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서 23절까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글썄요, 16절에서요. 그는 그들의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성격을 명확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식단 규칙과 유대교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금욕적인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음식을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서 음식의 경계를 너무 넓혀버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론의 일부를 천사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환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오, 당신이 이런 영적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들을 듣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를 볼 때는 조심하세요. 바울이 콜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만함은 이것과 함께 온다. 오늘날, 그때조차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만함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만함 속의 무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머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9절. 이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그리스도론에서 읽은 그 분. 우리가 화해한 그 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세상의 규칙을 장려하는 듯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23절까지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비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초등적인 영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원소적 영적 세력. 왜? 왜 마치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의 지배에 복종합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까? 왜 당신은 이 사기꾼과 거짓 교사들의 지시와 영향에 복종합니까? 그들은 들어와서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맛보지도 마십시오.

만지지 마세요. 사용으로 인해 썩어 없어질 운명인 것들과 관련된 이 규칙들은 단지 인간의 명령과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가 "그러므로 너희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쌓고, 그를 견고하게 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온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참으로 지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겉보기에 똑똑해 보인다. 스스로에게 부과한 숭배, 거짓된 겸손, 그리고 신체에 대한 가혹한 대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 탐닉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왜? 왜, 마치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규칙에 복종하는가? 무슨 왜라는 질문에 꽤 잘 답하거나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신자들이 더 이상 세상을 진정한 집이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장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규칙에 계속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플랫폼에서 바울은 나아가서, 이제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판단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실격당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문에서 부르던 것, 때로는 지시적에서 명령적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넓은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것에서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윤리적 것들로 옮겨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신의 개인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가르치는 어떤 종류의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 즉 구체적인 것을 하세요.

그럼, 3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3장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장을 살펴보고, 3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 논의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범위와 3장을 이해하기 위해 따라야 할 네 가지 기본 개요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사고방식을 개발하라는 부름입니다. 두 번째는 옛 것을 죽이고 벗기라는 부름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도발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여러분이 그 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죽음을 부르짖는 대신, 그리스어로 이미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정말 나쁜 일이며 즉시 죽어야 합니다.

이건, 알다시피, 이걸 어떻게 죽일까 결정하자는 게 아니야. 죽기 전에 2 주 동안 아프게 만들까? 아니, 나쁘니까 죽여. 또한, 재킷을 입는다는 의복 비유를 사용해서, 실제로 벗으라고 말하는, 낡은 것을 벗어버리라는 부름이기도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은 정말 보기 좋지 않은 이 낡고 거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벗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5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는 부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4장 1절까지를 살펴보면, 긴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살펴볼 것입니다.

3장을 읽기 전에, 시험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 대조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사고방식과 땅의 사고방식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콜로새의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들에게 하늘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땅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지 말라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것은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입니다. 천상의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상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강력한 진술을 하기 위해 대조적인 패턴을 요구하는 매우, 매우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 수사법을 사용하고 또 다른 강력한 대조적인 패턴을 사용하며 실제로 죽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해골과 어울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기둥에 속하는 것들은 죽은 기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구절의 3장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대조를 만들 것입니다. 옷 비유를 사용하여 옛 것을 벗고 입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 이제 개요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조적인 패턴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3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번에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도 않고, 그리스도 뒤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를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위의 것들에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 가치가 있는 올바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 1장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관찰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만 여러 번, 아마도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늘의 영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봅시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서양 학생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일부 아시아 국가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마을의 수장들이 모일 때 최고 수장은 중앙에 앉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최고 수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은 오른손에 권위를 가진 위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문화권에서 알 수 있듯이, 왼손은 깨끗한 손이 아니며, 좋은 일에 사용되는 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개념과 권위의 오른손을 지칭하는 그리스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권위자에게는 우월성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역에 앉아 계시지, 왼쪽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누구를 대신하여 권위를 행사하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들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도록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원한다면 코코넛 역학이라고 부르세요.

당신은 죽었고,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고, 이것은 하나님이고, 사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당신은 거기에 안겨 있습니다.

이중 보안.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이것은 개념 설명이며, 어떤 종류의 신학적 의미로 확장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천상의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사고방식을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글러스 무, 이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바울은 현재 우리의 천상적 정체성은 실제적이지만 숨겨져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물리적으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상 영역에 속했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4절은 이것이 언젠가 바뀔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동안, 그리고 화면에 제 철자가 틀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지위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이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확실히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그는 5절에서 강력한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5절은 실제로 명령형, 즉 명령, 죽임을 당함, 그 표현을 phatic position, 죽임을 당함의 형태로 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있으며, 이 천상의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죽임을 당함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당신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할 뿐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성적 부도덕,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심, 이는 우상숭배입니다. 와우 .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을 때, 이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분노, 분노, 악의, 중상, 너희 입에서 나오는 음란한 말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느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종과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의 지상적 본성에 속하는 것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목록이 대부분 성적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해로운 행동을 제거하거나 벗기세요.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말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오래된 관행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관행을 입어야 한다는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

그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 새로운 자아는 또 다른 영역인 지식에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이에 대해 꽤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본성은 너무나 새로워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알고 있었던 민족-인종 간 분열을 초월합니다. 종교적, 사회적 경계는 새로운

공동체 또는 새로운 자아에서 깨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서 새로운 자아 안에서 이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지상의 본성과 무엇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들이 대부분 성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첫째, 육신이 씨름하는 세상적 본성은 성적 부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성적 부도덕의 많은 형태를 의미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음행 또는 성적 부도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성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와 불순함에도 사용되는 의미에서 더 유대인적인 언어를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더러움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순함의 의미에서의 더러움. 사형에 처함.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콜로새 교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일으키면 사료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개인을 움직이는 신체에 내재된 성적 욕망입니다. 바울이 때때로 누군가의 아내를 쫓는 성적 열정을 이끄는 탐욕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대신 탐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그는 마지막에 사형을 선고하고, 사악한 욕망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에 그리스어를 추가하고 우상 숭배인 탐욕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이 탐욕은 때때로 돈에 대한 탐욕, 더 많은 것에 대한 탐욕, 영어로 greedy라고 알려진 탐욕과 같은 탐욕스러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종종 성적 악덕 목록에 사용될 때는 누군가의 배우자에 대한 탐욕, 누군가의

성적 파트너에 대한 탐욕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죽음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권한 내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벗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노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전에 이런 행동을 보셨을 겁니다.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분노가 자신의 존재를 채우고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겉모습에 대한 측면에서, 제가 때때로 입는 것에 대한 정적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신이 재킷과 함께 입은 옷을 나처럼 볼 때, 사실 내가 입은 옷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이게 만들고, 화가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나는 분노, 격노, 악의,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말로 터져 나오는 분노와 거짓으로 이어지는 분노라는 더러운 언어에 대해 바울은, 알다시피요?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분노의 형태는 에베소서에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그 중 일부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어에서 사용되는 일부 언어가 내면에 품은 분노의 감각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일부 분노, 즉 분노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의 일부 단어는 분노의 감각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번 화가 나면 악의로 가득 찬 온갖 일을 하게 되어 누군가가 더 상처받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신성한 수동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콜로새서에서 당신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실제로 새로운 자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일부 경계가 깨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인, 이방인, 유대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더 넓은 문화권 내에서 만연할 수 있는 민족-인종 간 분열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문화와 도시 역학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로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120마일 떨어져 있으며, 에베소라고 불리는 고대 세계의 크기에 비하면 매우 큰 도시입니다. 콜로시,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그리고 3도시는 모든 종류의 다문화 활동을 위한 좋은 허브를 형성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성들이 대중목욕을 하러 가서 일부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대중목욕 행사가 있는 문화권에서 실제로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욕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종교적 틀 안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들은 언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에는 이런 모든 분열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신을 숭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 신을 숭배하고 마법과 모든 형태의 종교 활동을 그들의 삶의 방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비유대인으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비유대인에 관해서는 그리스인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세계의 점령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보다 먼저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랑과 증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해 살았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사랑과 증오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역학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몰래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주변에 있을 때, 미국인들은 가장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의가 없다고 영국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 미국인이 주변에 없을 때는 부탁한다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른다. 미국인들은 훌륭하다.

그들은 시끄럽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랑과 증오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보다 먼저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점령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로마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배경에서 교회로 가져온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1장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교회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11절에서 그는 할레와 할레 사이에 그런 구별조차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때문에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내부에서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키려는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 배경에서 나왔다고 믿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할레를 받았지만 너희는 할레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너희는 할레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너희는 할레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레받은 자와 할레받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만한 흥미로운 구별을 계속합니다.

야만인과 스키타이인 또는 야만인과 스키타이인 사이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자유인은 노예가 아닌 사람입니다. 노예는 살 수 있지만, 노예는 자신을 사는 데 사용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대 세계에서 강조하겠지만 노예 제도는 인종에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는 주인과 같은 인종입니다. 하지만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는 뚜렷한 사회적 구별이 있습니다.

자유인은 노예가 갖지 못한 온갖 권리와 특권을 가졌다. 노예의 가장 큰 욕망은 주인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생각을 붙잡아 두십시오. 3장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만한 역동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교회에서 논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야만인은 당신이 그리스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만인이라는 비그리스인에 대한 거의 축소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모욕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바울은 교회에 그런 모욕적인 게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야만인도 없고 스키타이인도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보면 모든 스키타이인이 있습니다. 왜 스키타이인인가요? 이 표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에 있을 때, 저는 바울이 아칸족과 고펜족이나 북부 가나의 넘 바족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칸족은 거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북부 사람들을 얕잡아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칸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Nodna와 결혼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제 꿈이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글썄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루마니아에 있을 때 오만함이 느껴져서, 루마니아인 친구의 주의를 끌고 싶는데, 루마니아인과 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집시들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집시들 사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스키타이인은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들을 제쳐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스키타이인의 뉘앙스를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사람들, 그들의 지리,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이 그들을 배신하는 특정 장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를 내려다볼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키타이인이 흑해 바로 북쪽에 있는 스키타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할 것입니다. 고대 자료에서 얻은 증거에 따르면 스키타이인은 일반적으로 교양이 없고 야만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으며, 억압받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들을 얹잡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댄은 그 요점이 다시 분명하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과 개인 사이에 그런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경멸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혐오스러운 스키타이인들조차도 법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살고 일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바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를 12절에서 17절로 이끕니다.

그럼 입어. 입어. 이제 우리는 연기했고, 죽였고, 이제 입을 수 있어. 나는 그것이 좋다. 아마 재킷을 입어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나는 입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낡고 거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자비로운 마음,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서로 참아주는 자로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랑을 입으십시오.

입어라. 알다시피, 풀은 입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거야.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을 실현하라고 요청할 거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12절에서 그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무대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실제로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 은유에서 입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중에게도 보일 성격, 행동, 전망, 태도를 입는 것입니다.

낡은 거친 옷을 벗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에서 당신의 옷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은 당신의 대중적 이미지와 대중적인 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사회에서의 명예와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명예를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것을 그들의 정체성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교회에서 연대할 수 있도록 상호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원한다면 상호 지원을 요청하고, 정직성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체성에 뿌리를 둔 도전입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그들의 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거나 따로 구별되어 있으며, 사랑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일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헬스장에서 아침에 입는 옷을 입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잠옷을 사서 자랑 하고 싶어서 잠옷 차림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이 대표하는 바에 걸맞을까요? 폴의 요점은 당신은 평범하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따로 구별되었고,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의 일부만 줄 수 있으며, 당신이 가진 것의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공동체와 견고한 관계를 육성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폴의 요점은 당신이 특별하고 실제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상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준 명령과 지시를 보면, 있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연민이 있게 하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 악의, 격노, 중상모략을 벗어던지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어야 합니다.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용서. 와우, 이 단어들 중 일부는 너무 풍부해서 하루 종일 풀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그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기다리는 동안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태도를 수반하며, 때로는 곧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바라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태도는, 나는 짜증내지 않을 거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제 좌절감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그럴 때까지는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어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인 인내나 관용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종종 축구와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고, 야구 팬이든 미식축구 팬이든, 저는 여전히 경기 규칙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일종의 축구 팬입니다.

저는 축구를 했습니다. 마치 제 팀에서 뛰는 것과 같았고, 우리는 3-0으로 지고 있었고, 경기가 끝나기까지 5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3-0으로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는 패배로 경기를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모을 수 있고, 우리의 기량을 동원하여 열심히 일하고 게임에서 비기거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게 하는 내면의 힘과 확신 또는 강인함. 회복하고, 전진하고, 이기는 그 능력은 그리스어로 hypomoni 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 인내 또는 관용,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

그는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영이 있게 하라. 너희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수건을 던지게 하라. 그러면 그는 연민에 대해 계속 말할 것이다 .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라면 복음을 생각해 보라.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누군가 또는 몇몇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록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저는 이런 목록에서 그 단어를 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콜로새의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21세기에도 신자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주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용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용서받은 종류의 용서여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만합니다. 당신에게 보여진 자비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자비와 용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추구하고, 확실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하고, 교회에 불화가 없고, 화합이 있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방에서 싸우고 말다툼을 하며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논쟁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사회 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딘가에 그렇게 짜증 내며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 무리를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당신이 부르는 새로운 자아인가요? 사실, 콜로새서를 보면, 그게 당신이 구별되거나 거룩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인가요? 누가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는 사람인가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그것이 그들의 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게 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디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요.

아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100살이 된 것처럼 들리지만, 몇 년 전에 찬송가를 배웠고, 그 찬송가를 배울 때 영어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가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평화, 완벽한 평화.

이 최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의 피는 평화를 속삭인다. 내면의 평화. 바울의 요점은 평화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평화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평화의 왕자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의 미덕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지금까지 3장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어떻게 좁혀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거짓 가르침의 본질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지 거짓 교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민족-인종적 경계를 무너뜨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격노를 버리고, 성적 부도덕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할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좋은 자질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용서를 보는 상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불화가 아닌 통일이 정복되는 것을 보는 곳. 사랑을 보고 평화의 왕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반을 둔 감사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곳.

저는 여러분이 콜로새서에 대한 바울의 서신에 대한 이 토론을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받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 중 일부를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내면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록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이 성경 연구 강의 과정에서 여러분도 우리와 나란히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세션 5입니다. Take a Stand, 골로새서 3장.

